

이슈

2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제3266호



‘축구 황제’ 펠레(본명 에드송 아란치스 두나시멘투)가 고관절 수술 후 휠체어에 의존해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40년생으로 올해 80세인 펠레는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로 브라질의 월드컵 3회 우승을 이끌었다. AP뉴시스

걸을수 없는 축구왕 펠레

고관절 수술 후 재활에 실패
우울증까지 겹쳐 ‘두문불출’

‘축구 황제’ 펠레(80)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펠레의 아들 에디뉴는 11일(한국시간) 브라질 TV 글로보와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많이 약해졌다. 고관절 수술을 받은 이후 적절한 재활을 하지 않아 이동에 문제가 있다. 우울증도 생겼다”고 전했다. 에디뉴는 재활에 신경 쓰지 않는 펠레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에디뉴는 “왕이라고 불렀던 이가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는 것을 상상해봐라. 아버지 역시도 당황하고 있다. 밖에 나가려 하지 않는다. 남의 눈에 띄기 싫어해 아예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펠레는 세계 축구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선수로 평가받는다. 현역 시절 1363경기에 출전해 1281골을 터뜨린 최고의 축구 선수였다. 브라질 국가대표로 A매치(대표팀 간 경기) 91경기에 출전해 77골을 넣었다. 특히 1958년과 1962년, 1970년에는 브라질을 월드컵 정상으로 이끌며 전성기를 보냈다.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3회 우승을 경험한 선수는 전 세계에서 펠레가 유일하다.

은퇴 후 해설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축구계와 인연을 이어간 펠레는 지난 수년 간 신장 결석, 전립선 요도 절제, 고관절 등 다양한 수술을 받았다. 현재 휠체어에 의존해 지내고 있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매드리가 암배 가는 그날까지!

할머니가 하이킥 차는 그날까지!

작품이 예능의 끝판왕

이종TV

이종TV 유튜브채널 인기 폭발

칸·오스카 석권한 봉준호 감독의 내일은? 전 세계 영화계 시선 집중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칸 황금종려상에 이어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하면서 차기작과 한국영화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봉 감독이 10일(한국시간) 미국 LA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직후 파티에 참석해 트로피를 꺼내고 활짝 웃는 모습. LA(미국) | AP·뉴시스

차기작 배경은 서울, 영어 영화!

기생충 개봉 전부터 이미 구상 마쳐
2016년 런던서 있었던 사건 모티브
차기작 제작비 150억원 규모 예상
美 드라마 '기생충' 제작자라도 나서
할리우드 스튜디오 협업 제안 늘듯

봉준호 감독의 세계는 앞으로 어디로 향할까.

칸 국제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에 이어 세계 영화의 중심이자 할리우드의 심장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최우수작품상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을 향해 전 세계 영화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 작품으로 칸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거머쥔 역사상 두 번째 감독이라는 기록도 그의 가치를 높인다.

●“차기작은 서울 배경? 영어 영화?”

우선 관심은 '기생충' 이후 신작에 쏠린다. 2000년 장편영화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를 시작으로 20년 동안 씬 없이 작품 활동을 해온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 개봉 전부터 이미 차기작 구상을 마친 상태였다. 여기에 '기생충'을 전 세계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영어로 만들 또 한편의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도 구축했다.

봉준호 감독은 10일(한국시간)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직후 미국 L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독특한, 공포스러운 상황에 대한 영화 하나, 규모가 크지 않은 영어 영화 한 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영어 영화는 2016년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에 바탕을 둔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봉 감독은 지난해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기생충'을 가장 먼저 공개할 때에도 이미 차기작 시나리오 집필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후 1년여 동안 유럽과 미국 전역을 도는 강행군에 나서면서도 작업을 쉬지 않았다. 그는 “나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스카나 칸에서 상을 받기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며 “작품상으로 인해 바뀌는 건 없을 것 같다”고 담담히 말했다.

가장 주목받는 감독의 위치에 올랐지만 봉준호 감독은 차기작도 '기생충'과 비슷한 손 제작비 150억 원 안팎의 규모로 꾸릴 생각이다. 동시에 미국 방송사 HBO가 드라마로 만드는 '기생충'의 총괄 제작자라도 나서 영화와 다른 서사와 인물을 새롭게 구축한다.

●다른 한국 감독들에게도 긍정적 영향

담담한 봉준호 감독과 달리 그를 바라

보는 세계 영화계의 시선은 확연히 달라졌다.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을 기점으로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의 협업 제안 등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아카데미상 수상 감독이나 배우들은 실제로 캐스팅 상승효과를 누리기도 한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11일 “영화사에서 봉준호 감독처럼 영화제 성과와 흥행, 비평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얻은 연출자는 없을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감독이었다”며 “과거 쿠엔틴 타란티노가 구축한 세계가 완전히 봉준호로 넘어왔다”고 평가했다.

봉준호 감독이 일군 성과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한국 감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감독이 한국 배우들과 한국어로 만든 영화로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거머쥐면서 할리우드에서 한국영화와 제작진인의 저력을 각인시켰기 때문이다.

수상 효과는 이미 시작됐다. 수상에 힘입어 다가오는 주말 '기생충' 북미 상영관은 200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른 직후 1000개로 확대된 상영관이 수상으로 두 배 늘었다. 북미에서 개봉한 역대 비영어권 영화 흥행 6위를 기록 중이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기생충 신드롬

북미 상영관 2000개 두배 늘어
국내선 관련서적 20배나 팔려
28일 프랑스 세자르상도 노려



‘기생충’ 각본집
제92회 미국 아카데미상 4관왕에 오른 ‘기생충’은 이달 28일 프랑스의 아카데미 상으로 불리는 세자르상을 겨냥한다. 유력한 외국어영화상 후보로 떠올랐다. 영국 아카데미상 각본상과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기생충’은 이에 따라 세계 영화의

영화 '기생충'의 기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해외 영화상을 노리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개봉 및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서적 판매율이 크게 늘어나는 등 '기생충'은 신드롬에 가까운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제92회 미국 아카데미상 4관왕에 오른 '기생충'은 이달 28일 프랑스의 아카데미 상으로 불리는 세자르상을 겨냥한다. 유력한 외국어영화상 후보로 떠올랐다. 영국 아카데미상 각본상과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기생충'은 이에 따라 세계 영화의

급사 측은 상영관을 136개에서 4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관심을 이어간다. 아카데미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10일 '기생충'의 각본과 봉준호 감독이 직접 구성한 스토리보드를 담은 도서 세트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교보문고와 예스24 등 온오프라인 서점의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오르며 아카데미 수상 전날인 9일보다 무려 20배 이상 팔려나갔다.

이번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참석해 기쁨을 누린 '기생충'의 주연 송강호와 조여정을 비롯해 이선균, 최우식, 박소담, 박명훈, 장혜진 등은 이 같은 성과를 업고 12일 '금의환향'한다. 하지만 봉준호 감독은 현지에 남아 당분간 '기생충'과 관련한 일정을 소화한다. 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봉 감독이 귀국하는 대로 국내 취재진 및 관객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성용 복귀 발목 잡은 위약금의 진실

권리나, 족쇄나

약속은 약속, 서울 권리 옹호론 있지만
다른 해외파 선수는 위약금 조항 없어

‘K리그 복귀 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2009년 셀틱(스코틀랜드)으로 향할 때 기성용(31)과 K리그 친정 FC서울이 맺은 합의서의 핵심 조항이다. 당시 서울은 총 이적료(240만 유로)의 절반에 가까운 100만 유로의 보상금을 선수에게 지급하며 ‘위반 시, 200만 유로(현재 약 26억 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다른 조항도 포함시켰다.

지난달 31일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을 얻은 기성용은 서울과 우선 협상을 진행한 뒤 전북 현대에 입단을 타진했지만 이 조항으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그는 11일 “K리그 복귀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축구계는 구단-선수가 맺은 합의서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다. 서울의 권리가 행이란 반응도 있는 반면, 지나친 몽니라는 시선도 함께 존재한다. 전자를 옹호하는 쪽은 “약속은 약속”이라고 본다. K리그 모 구단 인사는 “서울 측 일처리가 확실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대로 후자는 “진로 선택을 막는 행태”라고 꼬집는다. 한 구단 관계자는 “서울이 선수를 품지 못했다. 타 팀은 절대 NO보다는 유연한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내가 안 되니, 너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며 안타까워했다.

더욱이 위약금의 존재는 K리그에 낮출다. 이재성(울산현대), 김신욱(상하이 선화), 권창훈(프라이부르크), 황희찬(잘츠부르크), 황의조(보르도), 지동원(마인츠) 등 해외진출 선수 대부분 진정과 ‘우선 복귀 협상’만 약속했을 뿐, 위약금이 적힌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있을까. 법 조계는 한 쪽의 ‘완전한 승소’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 변호사는 “위약금이 선수가 받은 금액의 두 배가 돼야 할 이유를 구단이 명쾌히 제시해야 승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다른 법률가는 “풀어줄 형편이 안 되는 팀에 가야 하는 것도 어색하고, 이를 어길 때 구단이 받는다는 피해 기준도 모호하다. 일정 지급액을 받는 선에서 조정될 공산이 크다”면서 “합의서 자체가 잘못된 아니냐 향후 선수는 ‘복귀 시, 〇〇원 이상 보장하지 않으면 타 팀으로 갈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걸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성용 K리그 복귀 불발

▶1면에서 이어집니다

전북과의 협상 소식이 서울이 다시 움직였다. 외부에도 계속 “기성용과 협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조건이 조금 수정된 제안이 에이전트에 전달된 것이 사실상 전부였다. 서울의 접촉 시도에도 양자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과 전북에 일체 연락을 끊고 침묵을 유지한 기성용 측은 결국 서울 관계자와 만나 “국내 어디로도 가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전했다. 짧고 긴 기다림은 그렇게 종지부를 찍었다.

●최고의 흥행카드 잃어버린 K리그

기성용의 유턴은 K리그에게 큰 호재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사태로 뒤숭숭한 분위기를 단숨에 잠재워 카드로 많은 축구인들이 기대했다. 그러나 서울이 프랜차이즈 스타를 품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성용도 현 시점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의 기성용은 새로운 행선지를 몰색 중이다. 축구 몸값전문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그의 시장가치를 450만 유로(약 58억 원)로 매겼다. 전 세계 현 FA 중 두 번째로 높다고 봤다. 실제로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대부분 이적시장 문이 닫힌 유럽 전류는 어려워 보이지만 중국·중동은 계속 손짓하고, 최근 급속도로 성장한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는 22일 시장이 공식 개장될 예정이라 새 팀을 찾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